

## 아버지학교를 마치며

지난 1월10일 시작한 아버지학교가 2월13일 감동과 은혜 가운데 그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4주간 열렸던 아버지학교는 이 날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지원자 아버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인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먼저 화해의 손을 내 미십시오!”라는 아버지학교의 금년도 프레이즈처럼 아버지들은, 이제까지 자신도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배우지 못해서, 자신이 좋은 아버지이고 남편이라고 과신하며,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힘들게 한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아내의 발을 씻어 주면서 눈물의 용서를 구했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들은 세족식을 통해 평생 처음 남편이 발을 씻어 줄 때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눈물이 흘렀고, 마음이 열려 남편이 내미는 화해의 손길을 잡았습니다. 이 날 수년간 별거 중이던 몇 쌍의 부부가 눈물로 화해하며 뜨거운 포옹을 하는 모습은 그동안 수고하는 스태프들의 피곤을 말끔히 씻어주는 청량제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4주간 달라진 표정과 말투가 다정하고 부드럽게 변한 지원자 아버지들이 성적인 순결, 삶의 순결, 영적인 성결을 다짐하는 서약을 한 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결 뺨지를 달아주며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미는 손길을 처음 잡은 6명의 아버지들에 대한 성경책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지원자 아버지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견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아버지학교를 위해 두 달 이상 기도하며 준비하고 수고한 스태프들이 피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번 아버지학교는 그 감동의 막을 내렸습니다.

〈주님의교회 가정사역팀〉

## 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은 그 자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삼년을 보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고등부 학생들은 게다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많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입니다. 고등부의 비전트리 사역은 바로 이런 고등학생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교육목회원 고등부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간담회가 지난 2월 20일 오전 1층 소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올바른 신앙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유석 부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교사와 스태프들, 기대보다는 좀 적었던 30여 학부모님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박혜성 목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언 1:7)임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님에게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 줄 것, 말씀을 만나는 부모님이 되어 줄 것, 예배를 지켜 주시는 부모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는 교육과정과 교사 소개, 반별 담임 교사와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주형 전도사는 지난 3년간의 고등부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1년차는 기독교론과 Q/T 훈련으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했고, 2년차는 성경론과 성서신학으로 성경에서 출발하기, 3년차는 조직신학, 교의신학으로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해서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어야 하고, 감정해소의 창구가 필요하며, 부모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개별 상담 시간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장경식 집사〉

## 제1여전도회 임원수련회



기다리고 고대하던 2011년 제1여전도회 임원수련회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그런데 어찌랴 임원들이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여러 날에 걸쳐 임원수련의 계획을 세웠는데 목격자인 강원도엔 눈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더니 그 지역에 눈으로 인한 재난선포까지 내려졌다. 오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교회에 도착하니 새벽에 살포 내린 눈은 출발을 축복한다는 전조인 듯 비도 오지 않고 둘째 날엔 화창한 날씨까지 허락해주었다. 속초시에 있는 도로공사연수원에서 공광승 목사님을 모시고 임원9명이 참석하여 먼저 도착예배를 드렸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쓰임 받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교회 밖에서 드리는 성찬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의 의미는 교회 밖이라고 달라질 수 없었고 더욱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서로를 익히고 한마음으로 결속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회장 도복희 권사님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틀 동안 운전하시느라 수고하신 목사님 그리고 많은 일에 충실한 임원진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김정순 권사〉

## 스포츠사역팀 소개



스포츠사역팀이 기지개를 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초기의 선교사들은 스포츠를 선교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약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강건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사역팀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여가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신앙생활과 따뜻한 교제를 도모하고, 믿지 않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래 청소년 농구팀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은 축구의 크로싱(총무:정권, 010-9795-7427), 테니스의 주사랑(부장: 이중석, 011-272-0324), 등산의 주님산사랑(대장: 장도수, 010-3008-1543)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농구부와 기타 종목에 관심이 있는 경우, 나영일(017-738-7144)팀장에게 문의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산사랑의 산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장도수, 010-3008-1543)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농구부와 기타 종목에 관심이 있는 경우, 나영일(017-738-7144)팀장에게 문의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산사랑의 산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2011년 주님의교회 등산부 일정(안)

- 일시: 매월 월요일 또는 노는 토요일 - 준비물: 등산화, 배낭, 윈드자켓, 스틱, 물, 간식

| 산행일자              | 장 소                                      | 산행일자             | 장 소         |
|-------------------|------------------------------------------|------------------|-------------|
| 1. 3월 21일 (월)     | 대모산과 구룡산<br>수서역 6번 출구 10:30 교회 09:50분 집합 | 7. 7월 19일 (주일)   | 정기총회 및 남한산성 |
| 2. 4월 9일 (토)      | 남산                                       | 8. 9월 5일 (월)     | 수락산         |
| 3. 5월 2일 (월)      | 관악산                                      | 9. 10월 8일 (토)    | 성곽길         |
| 4. 5월 14일 (토)     | 전교인 걷기대회 (잠실-여의도)                        | 10. 11월 7일 (월)   | 도봉산         |
| 5. 6월 4일~5일 (토,일) | 설악산 (차량준비)                               | 11. 12월 10 (토)   | 아차산         |
| 6. 7월 9일 (월)      | 북한산 둘레길                                  | 12. 12월 18일 (주일) | 정기총회 및 대모산  |

## 함글함글 <편집부>

편집장: 홍기협 안수집사 / 편집 지문위원: 정양재 안수집사  
편집기자: 노대홍 안수집사, 정선화 집사, 김희영 집사, 이은주 집사  
미디어 위원장: 박대길 장로 / 담당 교역자: 최용석 목사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 교회소식 이모저모

### -임시제직회 (3월 9일)

3월 9일 수요일 12단계 성경공부 후에 대예배실에서 열린 임시제직회에서 ‘목사안수 청원 건’ (문현주 전도사, 김주형 전도사)과 ‘신규 부목사 및 교육목사 청원 건’ (부목사: 유성훈목사, 사무엘 웨딩턴 목사, 문현주 전도사 / 교육목사: 김주형 전도사, 심진희 목사, 류은정 목사, 이해경 목사)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 -사무엘 웨딩턴 목사님 부임



나현수 목사님 후임으로 EM(English Ministry) 사역을 담당하실 사무엘 웨딩턴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 |오늘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  
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  
도다” \_ 사 53 : 6

통 권 \_ 제 280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3월 13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 “나의 겨자씨, 하나님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로 2011년 상반기 겨자씨인  
도자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찌 이 큰 행사  
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  
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함께 수고한 소그룹위원회 팀장님들과 팀원들에  
게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 수련  
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겨자목, 겨자채, 겨자씨인도자들  
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11년 상반기 겨자씨인도자 수련회는 “나의  
겨자씨, 하나님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광림비전랜드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에는 김영길 한동대 총  
장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어 교구별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자정을 전후로 군대의 내무반을 연상케 하는 2층  
침대가 나열된 방에서 피곤한 몸에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담임목사님께서 “새들이 깃들이니라.”  
라는 주제로 겨자씨인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한  
해 동안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식사 후, 담임목사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목사님  
들이 겨자씨인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필요  
한 내용들을 약 20분씩 나누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소그룹모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 2011년 목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겨자씨에서 해야 할 구체  
적인 일들은 무엇인가 / 올해 해외선교정책에 관하여 /  
장례, 병원심방, 대심방에 관하여 / 예수친구사역소개  
등) 첫째날과 동일하게 정말 많은 겨자씨인도자들이 차  
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 훈련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는 시간에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한 설문조사에 59명  
이 답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좋은 점 : 둘째날 사역발표시간이 좋았다 / 찬양과  
말씀시간이 좋았다 / 말씀암송시간이 좋았다.
2. 아쉬운 점 : 2층 침대가 불편하다 / 둘째날 프로  
그램 시작이 너무 빨리 시작되었다. /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 그냥 하루에 끝났으면 좋겠다 / 권찰도 참  
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소그룹위원회 담당목사로써 고민하  
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겨자씨인도자수  
련회는 상반기에는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는  
수련회로, 하반기는 상반기동안 헌신한 인도자  
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신앙성장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수련회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잠  
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소그룹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는 행사 하나 하나에 기도가 채워지도록 해보자!’ 라  
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 수련회 주제찬양처럼, 올 한해 모든 주님의교회 겨  
자씨인도자들이 주와 함께 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해 봅니다.

(조정현 목사)

##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순절

- \*참회의 수요일(3월 9일)
- \*사순절 첫째 주일(3월 13일) -테네브레예배
- \*사순절 금식
- \*종려주일(4월 17일)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18일 ~ 23일)
- \*성금요일예배(4월 22일)

### 주간 목회력

#### <테네브레 예배>

3. 13(주일) 어둠을 뜻하는 테네브레예배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드려  
지던 고전적 예배 양식입니다.

#### <성인 입교세례식 교육>

3.20(주일) ~5주간(매주), 신청 : 1층 로비  
세례예식 : 4.24(부활주일)

#### <교육목회원 전체교사대학>

3.20, 27(주일) 오후 3 : 30 / 대예배실

## 함글함글의 기사를 보내주세요.

함글함글에 글을 신기 원하시는 분은 기사를  
작성하셔서 hamletter@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에서 검토 후 실어 드립니다.

문의: 최용석 목사 T.010.4234.4489

|                        |    |
|------------------------|----|
|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의 의미       | 2면 |
| 교육목회원탐방 / 겨자씨선교헌금      | 3면 |
| 아버지학교/고등부간담회/여전도회수련회 외 | 4면 |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의 의미 \_정재상 목사

### 1. 교회의 절기는 왜 지켜져야 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의미 깊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기억해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기억하여 그 날의 그 사건을 되돌아보는 일도 있습니다. 가령 가족의 생일과 집안의 경조사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매년 반복하여 기념하여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교회적으로도 기념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을 기념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절기로서 가장 중요하고 화려하게 지켜지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절기의 중심은 부활절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형성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순절, 주현절, 성탄절, 대림절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의 승천 이후를 성령강림절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더욱 분명하고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 2. 사순절은 왜 40일인가? 매년 날짜가 다른 이유는?

사순절은 부활절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四旬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매년 12월 25일인 것과는 달리 사순절이 매년 날짜가 다른 이유는 매년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후 첫 주일이 부활절로 정해지고 나서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46일전부터 사순절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46일 전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금년에는 지난주 수요일 3월 9일이었습니다)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야(Easter Eve)까지 40일간 계속됩니다. 이 기간 중에 있는 6회의 주일을 제외하면 꼭 40일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절 전 한주간만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다가 니케아공의회(325년)부터 40일로 확대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바,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후 겪은 광야생활 40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사건 등, 우리가 40일 작정기도를 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순절은 '봄'을 의미하는 'Lent'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헬라이어 '테사로코스테'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교회의 경우 40일을 기념하는 후자의 의미를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 3. 사순절 영성 -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정의가 있으나,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고(하나님 사랑), 그다음으로는 세상과 타인과 관계 맺어야 합니다(이웃 사랑). 따라서 사순절 영성이란, 사순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순절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신앙 습관이 행해져왔는데, 바로 성회 수요일에 재를 이마에 바르는 것, 금식, 구제와 선행입니다. 재를 이마에 바르는 것은 인간이 죄의 결과 죽음으로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금식은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식욕의 욕구를 자제하는 것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이며, 구제와 선행은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만을 위한 생존본능을 자제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아의 죽음이고, 자기부정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고난과 기도와 십자가에 의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정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으실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영성은 나 자신과 이웃으로 향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으로 인도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 뜻깊은 영광의 부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사순절에 할 수 있는 영성훈련

#### (1)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성경묵상

##### 1주차-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묵상 본문입니다.

<구할 은총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비친 한 인간으로 오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

월 요 1:1-14

화 요 3:26-30 세례요한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수 눅 1장

목 눅 2장

금 빌 2:1-11

토 마 2장

##### 2주차 - 예고에이미 :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유로 자기소개한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구할은총: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

월 요 6:35, 48-51, 53 (세상의 떡)

화 요 1:59, 8:12 / 마 5:14 (빛)

수 요 10:7-10 (양이 드나드는 문),

목 요 15:11-18 (선택된 목자)

금 요 11:1-6, 17, 20-25 (부활이요 생명이니)

토 요 15:4-9 (포도나무)

##### 3주차 -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과 그 성격인 이적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보고 알아갑니다.

<구할은총 :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와 시작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의 모든 동기와 순종이 사랑이게 하소서 >

월 마 4:1-10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화 막 10:46-52

병고침 이적 ① 바디매오가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수 막 5:25-34

병고침 이적 ② 혈루병자가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목 막 4:35-41 자연이적 ① 풍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금 막 6:30-44, 막 8:1-9

자연이적 2 굶주린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토 막 9:14-29

병고침 이적 ③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나

##### 4주차-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구할 은총 : 어떠한 모습도 사랑으로 영접해주시는 예수님께 나의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모습으로 나아가 안기게 하소서 >

월 눅 19:1-10 삭개오의 모습으로 예수님 영접하기

화 눅 7:36-50 향유옥합 여인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수 눅 18:9-14 제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목 막 10:35-45 야고보와 요한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금 요 8:3-11 간음한 여인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토 막 7:24-30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 5주차-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구할은총 : 내 안에 배은망덕한 모습을 통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의 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은총을 구함 >

월 막 1:16-20 / 눅 5:4-10

베드로 되어 예수님 만나기

화 막 14:10-11 / 마 27:1-5 가롯유다 되어 예수님 만나기

수 눅 22:54-62 예수님 배신하는 내 안에 베드로 보기

목 마 26:36-41 / 눅 22:31-32

잠든 제자들의 모습 안에 나의 모습 보기

금 마 26:39 / 눅 22:42 / 막 14:35-37

예수님의 기도 따라함으로 예수님의 마음 가져보기

토 요 20:24-29 도마가 되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 6주차-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따라가봅니다.

<구할 은총 :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을 따라가며 주 예수님과 일치되게 하소서 >

월 마 21:6-7, 9-11 / 요 2:13-22

화 막 12:28-34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수 요 17장 중 일정구절 범위를 정하여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봅니다

목 요 13:1-11

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일곱마디 말씀

가상철언으로 묵상합니다

눅 23:34, 눅 23:43, 요 19:26-27, 마 27:46, 요 19:28,

요 19:30, 눅 23:46

##### (2) 말씀 묵상과 더불어 삶으로 해보는 사순절 영성훈련

###### 1주 사순절 기억하기:

사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장식을 해봅니다.

###### 2주 하나님 임재연습: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3주 고독과 침묵:

홀로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제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 4주 절제와 나눔:

나의 기호품 중 한 가지를 일주일간 절제하고 그것으로 나눕니다.

###### 5주 금식과 나눔:

일주일 중 세 끼 정도를 금식한 후 그것으로 이웃에게 나눕니다.

###### 6주 5주간 했던 모든 영성훈련을 함께하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 교육목회원 <하늘씨앗> \_이희영 전도사



♫ “하늘씨앗 아기들은 어떤 아기일까  
요? 엄마와 함께 매일 매일! 하나님께 매일 매일! 기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아기에요” ♫

이렇게 고사리 같은 예쁜 두 손을 가지고 고운 입을 모아 영아부 표어를 외치는 아기들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기 향기 가득한 하늘씨앗 영아부입니다.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 소속된 영아부는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15개월 아기들부터 36개월까지의 어린 아기천사들이 매주일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영아부의 다른 이름은 “하늘씨앗”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아부 아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늘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씨앗 영아부는 주님의교회 1층 영아부실(정신여중고 무용실)에서 매주 예배와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예배 시간에 따라 영아1부와 영아2부로 나뉩니다.

영아1부의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09시 30분 ~ 10시 30분이며, 영아2부의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입니다. 하늘씨앗 영아부는 부모로부터,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교육기관입니다. 영아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이 하늘씨앗 아기들이 싹트고, 잎이 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가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부는 아기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행동적, 신앙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는 아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가장 적합한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아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의 변화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위에 자라난 아이들은 위급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영아부를 들여다보면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시기, 무엇이든지 새롭게 성숙되어지는 일 이 많은 단계입니다. 그러하기에 보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아부 아이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돌보기를 다짐한 교사들이 모여 계신 곳이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낮추며 한 어린아이에게 섬기며 그에게 집중합니다.

또한 영아부 교사들은 하늘씨앗 아기들을 통해 하하 웃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늘씨앗 아기들이 기쁨아이, 믿음아이, 비전아이로 자라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기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교육을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기의 성장과 변화를 보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과 두 손잡고 영아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 겨자씨 선교헌금이 보내지는 베트남교회 20곳 <베트남 남부총회 추천>

|    | 대 상 자                 | 교회이름     |
|----|-----------------------|----------|
| 1  | 광찌 전도사                | 동화 기도처   |
| 2  | 후에 응우옌 랍              | 시아       |
| 3  | 까마우 전도사               | 우민       |
| 4  | 끼엔 양 응우옌 황 뜨 전도사      | 안빈 기도처   |
| 5  | 박리우 또 반 민 전도사         | 화빈 기도처   |
| 6  | 짜빈(담임과부교역자)           | 짜 꾸      |
| 7  | 벤 쟈 후인 후 난 전도사        | 흥 능      |
| 8  | 동 탑 응우옌 몽 흥 목사        | 안 풍      |
| 9  | 호치민 응우옌 후 응 전도사       | 구찌       |
| 10 | 동나이 목사                | 흐화       |
| 11 | 빈푹 닥 짝 목사             | 동 쏘아이    |
| 12 | 닥 락 만도 목사/아이 부온전도사    | 부온 자뜨    |
| 13 | 닥 농 린 반 카오 전도사        | 야오 족속    |
| 14 | 플레이꾸 이 부이 목사          | 플레이 또 와우 |
| 15 | 꼰 돔 후인 반 후 하          | 꼰 돔      |
| 16 | 럼동 리엥 하 퐁 전도사         | 치엔 까오    |
| 17 | 꽁응아이 딘 루옹목사           | 선하       |
| 18 | 빈딘 응우옌동당목사/응우옌응옥탕 전도사 | 빈 응이     |
| 19 | 푸 인 보 응옥 선            | 화 쑤언     |
| 20 | 칸화 하야 목사              | 칸빈       |

\*자료제공 :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부

## 겨자씨 선교헌금 통계(2010.10~2011.02)

